@yahomeotzine

야호! 멋진인생

안녕, 구남

<늦가을호>

안녕...



<안녕 투어, 여수 뚜부칩 특설 무대에서>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해체에 관한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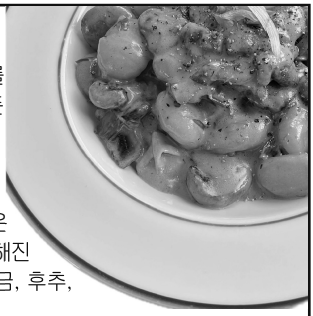
나의 구남에 대한 기억은 12년 전, 밴드의 시대가 방영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니께서 "이런 게 밴드야"라며 보여주신 방송 속에는 3호선 버터플라이, 피터팬 컴플렉스, 크라잉넛, 쏜애플 등 어린 나에게는 충격적이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중에서도 구남의 「우리는」 무대는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베이스를 치던 임병학 씨가 계단을 오르며 관객을 향해 나아가던 모습, 락스타들의 다이빙에는 비할 수 없지만 관객을 바다 삼아 떠다니던 조웅, "우리는"을 연신 외치며 무대를 히피스러운 에너지로 가득 채우던 김나언과 박태식, 그리고 무대를 꾸몄던 다른 이들까지. 비록 0승 4패라는 웃을 수만은 없는 성적을 끝으로 구남은 더 이상 그곳에서 연주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나에겐, "락스타"라는 단어보다 더 근사한 무언가로 각인됐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인디"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꽃피기 시작한 때가…

(3면에서 계속)

<목차>

하이재커스 다이닝
WORLD WILD JET
요즘 뭐 들어?
야호! 문예부
CLUB VICTIM 인터뷰
야호! 멋진 인생 속 멋진인생
만화/메아리 코너

하이재커스 다이닝



보컬의 순대 국밥 맛이 나는 바이스부어스트 크림 뇨끼

독일에서 지낼 때 기숙사에서 해 먹은 요리다. 원래 남은 소시지와 블루치즈,파를 넣고 만든 냉장고 정리 요리인데 의외로 순대 국밥 맛이 나서 신기해서 적어둔 레시피. 입맛에 너무 느끼하다면 다데기를 만들어서 얹어 먹어보세요.

〈재료〉

여행 가 있는 동안 상하지 말라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바이스부어스트(혹은 모둠소시지에서 하얀 것)와 버섯, 시들지 말라고 유리병에 꽂아 놓았지만 이미 시들해진 파, 오래됐지만 생각보다 아직 멀쩡한 뇨끼, 조금 남은 생크림과 블루치즈, 소금, 후추, 로즈마리, 올리브오일

〈레시피〉

파, 버섯, 소시지를 적당히 잘라준다.
냄비에 올리브오일 두르고 다 때려 넣고 볶는다(자주 안 섞어도 됨). 소금 살짝.
다 익어가면 뇨끼를 넣고 좀 볶는다. 물 조금이랑 생크림을 넣고 뇨끼를 익힌다.
국물이 적당히 졸아들면 불 끄고 블루치즈 후추 로즈마리 넣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섞어준다.
파 약간이랑 후추로 토핑하고 서빙.

다음호에는 Peach Truck Hijackers의 [하이재커스 다이닝] 베이시스트의 멕시코 길거리에서 어깨너머 배운 타코 레시피…

기타리스트의 소울푸드 레몬 버터 파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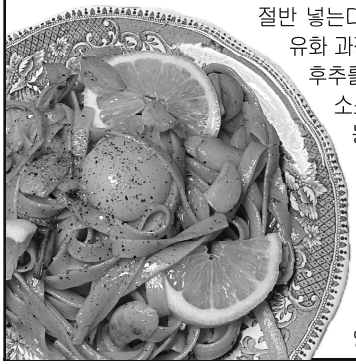
남부 이탈리아 할머니가 꿈인 나는 레몬이 없으면 요리를 안 하는데, 알리오올리오를 베이스로 레몬과 버터를 추가한 이 레몬 버터 파스타는 간단하고도 매력적인 맛으로 나의 입맛과 내 친구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재료와 과정은 간단하지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재료를 넣어야 하기에 만약 파스타 요리에 익숙하지 않을 시 자칫하면 재료를 태우거나 애매한 맛이 나는 요리를 만들게 될 수도 있다. 마늘은 너무 빨리 타고 파스타 면은 너무 빨리 익기 마련이니까…

〈재료〉

파스타 면 1인분(스파게티나 링귀니, 당신이 파스타에 자신이 있다면 탈리아텔레를 선택하라), 올리브 오일(꼭 스페인 혹은 이탈리아산을 쓰기를…), 마늘 5~6쪽 (편 썰기), 버터 두 스푼, 레몬 1/2개 (즙, 제스트), 달걀 노른자 1개, 치즈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소금, 후추

〈레시피〉

물에 소금간을 하고 파스타를 삶는다. 봉지에 쓰여 있는 알단테 기준 시간보다 1분 덜 삶는다. 팬에 올리브 오일 두르고 마늘을 볶는다. 여기서 버터를 한 스푼 넣어 녹여준다. 마늘이 아주 노릇해지기 전에 레몬즙을 절반 넣는다. 팬에 삶아진 파스타를 넣는다. 면수를 반 컵 정도 같이 넣고 저어주면서 유화 과정을 통해 소스를 면에 달라붙게 한다.



후추를 뿌리고, 간을 보면서 싱거우면 소금을 추가한다.
소스가 조금 졸아들면 레몬즙을 더 넣고 버터 한 스푼도 마저 넣는다.
농도를 확인하며 면수를 추가하고, 갈아둔 치즈를 넣어 마지막으로 소스 농도를 맞춘다.
접시에 담고 계란에서 노른자만 분리해 얹는다.
남은 흰자는 부쳐먹거나 빵을 만들 때 쓰거나…
노른자를 소스처럼 곁들여 먹고, 먹으면서 산미가 부족하면 그때그때 레몬즙을 더해주면 된다.
(+ 이 레시피를 거의 그대로 버터 양을 줄이고 이탈리안 파슬리를 추가하면 영화 '아메리칸 셰프'에서 나온 끝내주게 맛있는 알리오올리오가 된다.)

구남...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집 『우정모텔』이었다. 우정이 없어질거 같은 타이틀에 「건강하고 긴 삶」, 「아침의 빛」, 「감기망상」 같은 수록곡들을 들으며 점차 빠져들었다. 그 후 1집을 찾아 들었고, 2집에서 처음 느꼈던 감정들을 1집에서도, 이후 발매된 앨범들에서도 계속 느낄 수 있었다. 이후 나온 3집, 4집, 5집을 들으며 멀어진 친구가 잘 지내길 바라듯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응원했다. 구남의 무대는 늘 즐거웠고 주체할 수 없는 본능을 자극했다. 아직 구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라이브를 보여주며 소개하고 싶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다. 여전히 공연을 보며 행복해져가는 마음을 느끼며 새로운 사람들과 구남의 음악을 나누고 싶은 것인지, 내가 더 보고 싶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마지막 대구 공연을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그래도 슬픔보다는 고마움이 더 컸다.
구남, 수고했어요.

- 제임스레코드 -



<구남, 제임스레코드에서>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해체에 관한 이모저모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다시 듣게 된 『모래내판타지』와 『1969』 앨범으로 이들이 누구였는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이들이 누구였는지, 왜 그토록 내 안에 남아 있었는지. 물론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에게 "우리는?"을 외치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세월을 건너 내 청춘 한가운데로 다시 스며들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 스물 한 살이 다 되어서야 나는 정말로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프릇이든, 채널1969든 그들이 선 무대라면 어디든 갔다. 내가 어린 시절 텔레비전 너머로 바라보던 그 공기와 열기를 그때서야 비로소 실감했다. 하지만 프릇 20주년 공연을 본 날, 해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제 막 도착했는데 무대의 불이 꺼져버린 사람처럼 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계절은 오면 떠나는 법이고 괜히 맘 가는 사랑 나누면 쓸쓸한 법이라 하더라. 구남의 음악도 그렇게 내 인생의 어떤 시간을 불태우고, 재로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재는 아직 따뜻하다. 불꽃도 없이 연기만 피우던 외침은 아직 내 안에서 작게 타오르고 있다. 그들의 노래는 끝났지만, 내 안의 구남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 시절의 열기 그 무대의 모습 그때 느꼈던 에너지가 지금도 내 기억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을 쉰다. 아마도 이런 게 진짜 구남 음악의 생명력일 것이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도, 플레이리스트 속에서 그들의 노래를 꺼내 듣는다.

- 평범이 -

WORLD WILD JET



DJ호도리의 세계한식기행: 몽골 울란바토르편

이번엔 최고의 한식 연구가이자 유명 디스크자키이신 호도리님의 몽골 한식(韓食) 여행기 첫 날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한류열풍으로 전세계 어디를 가던 삼겹살집이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은 몽골에서는 야채를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역시 한식의 위대함으로 무료로 쌈과 김치등을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음식인 삼겹살구이, 저희는 처음으로 몽골산 돼지고기를 먹어보았는데요. 천연으로 키운 돼지이다보니 너무 맛있고 즐거운 돼지의 즐거운 초원의 삶도 느껴지는 맛이였습니다!
호도리님이 강력추천하는 울란바토르의 삼겹살 모두 한 번 즐겨보시죠!

- 이학기 기자 -

〈식당 정보〉
DONY PORK / 도니 포크
Khünnü St. (Хүннү гудамж),
26th Khoroo, Bayanzürkh Dist.,
Ulaanbaatar 13313, Mongolia
☏ +976-7711-6966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DJ호도리의 신나는
디제이 레슨 DM주세요!
@dj_hodori

5월의 건즈앤로지스 공연 관람 후기



건즈 앤 로지스 공연을 보고 왔다. 중학교 때 생각이 많이 났다. 별 같잖은 이유로 화나면 듣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도 떠올랐네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나중엔 요즘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도 그리워지겠지요…
액슬 로즈와 슬래시는 뚱땡보였다. 액슬 로즈는 뚱땡보에다가 목소리도 잘 안 나왔지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보이는데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노래를 불러야 하는 부분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도 고개 한번 까딱이며 웃어넘길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는 것. 타고나는 것일까 혹은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일까.
공연을 보면서 최근에 본 늙은 조지 해리슨의 인터뷰가 계속 생각났다. 17살에서 57살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40년 정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변하는 건 몸뚱아리 뿐 마음만은 똑같다고.
오늘의 건즈 앤 로지스가 그래 보였다. 마음만은 90년대였다, 하지만 말썽은 몸이 일으키지.
정말 감동이었다 건즈 앤 로지스. ㅠㅠ
열심히 살 빼야겠다고 생각했다. 난 액슬 로즈도 아닌데 살까지 쪄버리면 안 되는 거지.

락스타가 되겠습니다. 꼭. ㅠㅠ

- 정향기 -

요즘 뭐 들어? <청소년 편>

요즘 10대들, 도대체 뭘 듣고 살까요? 아티스트•앨범 소개부터 공연 후기까지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이야기로 이어폰 너머 그들의 진짜 취향을 알아봅니다.

〈헤이리 판 페스티벌, 원호와 타임머신〉



최근에 관람한 공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는 파주 헤이리마을에서 본 원호와 타임머신이었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고, 밴드의 빈티지한 사운드는 그 시대의 감성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다. 요즘 활동하는 밴드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옛스러움을 표현하는 팀은 드물다. 멤버들의 연주 실력도 뛰어났고, 서로의 호흡도 완벽했다. 특히 프론트맨인 원호 님의 따뜻한 음색이 음악의 분위기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곡은 「그리움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이었다. 이 곡은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들었을 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다. 공연장에서 직접 들으니 그 감정이 더 진하게 다가와서, 잠시나마 걱정하고 있던 일들을 잊어주게 해주었다. 가사 또한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시간과 기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곡 속의 따뜻한 정서와 아련한 멜로디가 어우러져,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추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그 여운이 오래 남았다. 원호와 타임머신의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었다. 이번 공연은 내가 지금까지 본 무대 중 가장 감명 깊은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 헤일리(20) -

〈teenagegaze〉

슈게이즈(shoegaze)는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장르이다. 소리는 흐릿하고, 보컬은 배경처럼 묻히며, 감정은 언어보다 깊이 전달된다. 바로 그 특유의 무드와 자유로움 속에서, 최근 한국 인디 음악계에 두 명의 10대 아티스트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 감정의 결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소리로 구현해내고 있다.



Causeyourcheeksblushed

2009년생으로, 올해 만 16세이다. 아티스트명 Causeyourcheeksblushed는 말 그대로 '당신의 뺨이 붉어진 이유'를 묻는 듯한 문장형 이름으로, 그 자체로 감정에 대한 섬세한 관심을 드러낸다. 그는 2025년 9월, 첫 정규 앨범 『Midnight Sensualism, Drenched in Regret』을 발표하였다. 앨범 전체는 제목에서 느껴지듯, 감각과 후회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곡 「Failure in the Saturday With all my friends」, 「새벽난동」, 「After Sleep, Change to Ordinary High School Shonen」 등에서는 흐릿한 노이즈 속에서 불안정한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기타의 피드백과, 낮게 깔리는 보컬은 그의 또래가 겪는 혼란과 내면의 울림을 효과적으로 전한다. 그의 음악에는 지금 이 순간,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다.

프로젝트 모시(Project Mosi)

프로젝트 모시는 10대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로, 슈게이즈를 중심에 두되 로우파이, 드림팝, 포스트록 등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결합하여 독창적인 사운드를 구축해 왔다. 2024년 6월 정규 1집 『침묵하고 부수고 답하기(Silence, Crumble, and Answer)』을 발표하였다. 「침묵하고 부수고 답하기」는 앨범의 주제를 요약한 15분짜리 대곡으로, 무너지는 듯한 기타 리프와 반복되는 리듬이 인상적이다. 「휘청」, 「당신의 무릎은 안녕하십니까」 같은 곡에서는 일상 속 언어를 시적인 방식으로 끌어와 소리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의 음악은 직접 제작된 로우파이한 음질 속에서 정제되지 않은 감정의 진실함을 전한다. 그리고 그 점이 그의 음악을 더욱 진지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Causeyourcheeksblushed와 프로젝트 모시는 단순히 어린 나이로 주목받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현실을 감각하고, 그것을 음악이라는 형식으로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다. 슈게이즈라는 장르는 이들에게 도피처가 아닌, 정면으로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한다. 지금, 우리는 음악을 통해 자기를 탐구하고 표현하는 10대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음악은 '지금'이라는 시간과 감정의 기록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 김대현 / 유리조각소년(16) -

야호! 문예부

High School of Loyal Rock

2004년, 겨울 서대문구 연희동

궁둥산 언저리에 사는 석렬이라는 중학생 소년이 있었다. 늘 산을 오르던 탓에 소년의 발바닥은 여느 프로 등산가와 다르지 않았다. 근처에는 예전에 대통령도 살았다던데, 소년은 이 동네 가난이 어디서 온 것인지 늘 궁금해 했었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석렬은 원래 부잣집 아들이였다. 그 놈에 IMF가 뭐라고 사람들을 삼켜버렸는지 석렬이의 부모도 서울을 나누는 그 강에서 투신해버렸다. 석렬이는 늘 이렇다 할 좋은 기억이 없는 음침한 소년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석렬인 적당히 머리가 나쁘진 않았나 보다. 똥통으로 불리던 연희중학교에서 내년부터는 충암고로 가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중학교 일 학년 때부터 야구부에 들어갔다. 친해지기는 커녕 소심했던 석렬은 이례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중학교 3년을 보냈다. 그래도 연희중 꼴통들은 근처 상고나 공고로 다들 진학하여 충암고에선 만날 일이 없으니 다행이려나 싶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석렬의 생각이다. 봄을 기다리며 석렬인 할머니가 좋아하던 노래 나훈아의 사내를 버스정류장에서 부른다.

2005년, 봄

이유없이 기찻길은 노란색이였다. 거리를 건너려면 늘 흩날리던 개나리가 괜시리 슬프게 느껴진 석렬이였다.

- 이기학 -

음악 팬 조직하기(?)

창원에 살게 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살기에 썩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공연장이 너무 적다는 것이 아닐까. 인스타그램을 훑다 보면 보고 싶은 공연은 보통 서울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좌절하곤 한다. 간혹 지역에서 공연이 열린다고 해도 부산이나 대구 정도는 가야 하는 편이다.

시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돌려 보자. 생각보다 내가 사는 곳에 재밌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느낀다. 엉클밥도 있고, 잔물결도 있다. 둘 다 마산/창원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밴드다. 얼마 전부터는 창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DJ 프로젝트도 생겼다고 한다(!). 가끔은 꼭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만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고 고민해 본다. 무엇보다 공연 보러 매달 상경하다간 지갑이 남아나질 않는다...!

내가 사는 곳에도 흥미로운 뮤지션은 넘쳐난다고 생각한다. 문제라면 그들이 공연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공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이든 창원이든 인디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과 창원의 차이점은 그들을 모아 줄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일 테다. 그게 슬램이 난무하는 공연장이든, 좋아하는 곡을 공유하는 뮤직펍이든 말이다. 꼭 물리적인 공간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일단 음악 좋아하는 지역 사람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모아서 공간도 갖고, 그러다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도 기획해 보고. 이런 시도가 쌓여서 생기는 게 결국 음악 씬이 아닐까 싶다. 주위 친구들 모아서 시도해 볼까나.

- 종현(창원 사람) -

순정의 應接室

안녕하세요. 순정의 응접실입니다. 언제나 손님을 모십니다.

원래 조금 써놓은 글이 있었는데,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나도 모르게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아마 힘든 마음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써봅니다.

얼마 전이 참사 3주기였죠.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을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슬픔을 온전히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독립(獨立)이나 자립(自立)이라는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한 개인이 외따로 존재하는 이미지로 상상하고는 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은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로서도 괜찮아'가 아니라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에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것 말이죠. 우리 매거진은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직접 음악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당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약한 지점을 마주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도 생기고요. '내 얘기는 사소해', '나보다 힘든 사람이 더 많아' 또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거야'하며 자기 안에서 먼저 제단해버리기도 하고요.

괜찮아요. 계속 이야기해주세요.

- 순정(응접실 주인) -

Club Victim

Victim은 2014년에 로컬 스트릿 브랜드로 시작했다. 처음엔 옷과 디자인을 통해 이야기를 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 쪽으로 방향이 옮겨갔다. 지금은 Victim Records와 Club Victim을 중심으로, 패션보다는 음악과 문화를 다루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Victim'이라는 이름은 80~90년대 한국의 아픈 현대사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 느껴졌던 무거운 분위기를 담고 싶었다. 90년대 한국 문화에는 거칠지만 솔직한 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시절의 감성을 좋아한다. Club Victim은 그런 정서를 지금의 언어로 이어가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클럽은 금·토·일에 항상 열려 있으며, 밴드들이 좀 더 쉽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로 펑크와 메탈 공연이 많지만, 장르와 상관없이 언제나 열려 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단순하다. 좋은 밴드들이 마음껏 공연하고, 사람들이 그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Victim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방향이다.

- 윤기선(클럽 빅팀 대표) -

수요초대석

- 오픈마이크 -
참가신청

소규모 세팅의 생음악 및 전자음악,
웅변, 대담, 각종 원맨쇼 환영

@invitation_wednesday

금요음악생활

음악생활 커뮤니티에 접속해 보세요
https://discord.gg/Sh3K2DAt

광고 문의 환영
yahomeotzine@gmail.com



야호! 멋진 인생 속 멋진인생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 '멋진인생'은 일출을 보기위해 새벽 4시즈음 설악산에 올랐다

그랜드 캐년만한 설악산에서, 해를 본다는 건 또 우주적인 기운을 받아 새로운 앨범을 제작하려는 것이 아닌지 감히 생각이 든다.

그들은 새벽 5시경 백담사에 도착했다. 해가 뜨는 시간을 아무리 기다려도 해는 뜨지 않았다.

마침 나오신 스님에게 물어봤다.

"스님 혹시 해가 몇시쯤 뜨나요?"

스님이 말씀하셨다.

"산에서는 해가 안 보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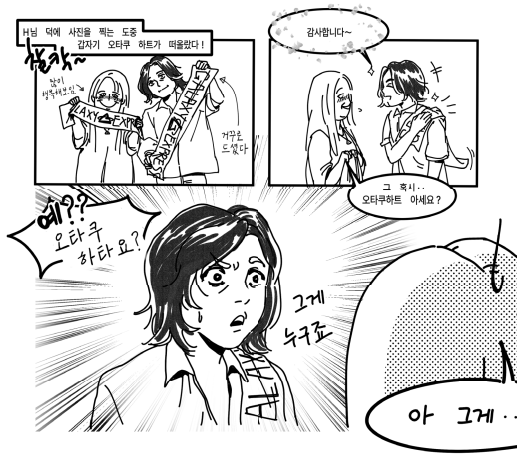
산은 해를 가린다.

그들도 '멋진인생' 도 해를 가렸다.



만화/메아리 코너





By 김채이(만화학도, 갤럭시 익스프레스 팬)





편집국: 안홍인(편집국장), 아인(편집부장), 순정(홍보부장), 예지(교열부장)

야호! 멋진인생

발행일: 2025년 11월 9일
구성, 편집: 야호! 멋진인생
제작, 발행: 야호! 멋진인생

투고·제안·제보·광고
yahomeotzine@gmail.com

딱따구리
맞춤형 인테리어
토탈서비스
@gojaeworks